

그리스도 왕 주일

기도서 P. 481 C해

- 1독(사 무 후 5, 1-3절)
- 2독(골 로 1, 12-20절)
- 복음(루 가 23, 35-43절)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강론□



영광의 왕 그리스도의 군림

김 봉 희 신부

숨가쁜 역사의 쳄바퀴가 또 한번 굴렀다.

일구칠월년 인간드라마의 종막을 고하는 군악과 함께 또 한차례 숙연히 휘날레가 펼쳐진다.

어처구니 없는 죄목-「왕권을 탐한 자」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처형되어 이젠 영 사라지고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예수, 설마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늘에 이리도 찬연한 대왕의 옷을 두르고 천사에 응위되어 나타나실 줄이야!

너무도 당당한 위엄 가득 서린 중에, 기구한 삶을 썼던 선이(善人)가 급기야 세자에 책봉되고, 기고만장하던 재상(惡人)이 무상히 죽음에로 꺼져가는 서슬퍼런 심판대엔 마야흐로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엄중한 선고가 내린다.

오늘은 교회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 죽을지 살지 모르고 정신 없이 내달아 왔던 한 해, 갖가지 죄로 얼룩진 어젯날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맘조여 헤아림을 받는 날이랄까.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믿는 우리였건만 어영이고 도리고 막무가내, 까맣게 잊고 식어진 채 치숙던 죄생(罪生). 나에게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면...?!

몽매한 인생들 위에 애뜻한 님의 정 가득 새긴 구세사의 종장(終章)을 덧없이 넘기며 내일의 자신을 조용히 그려본다.

가없는 우리, 정작 하느님 어전에 서게 될 그 날을 생각하여 오늘 다소곳이 고개 숙이고 깊은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옳지 않을까? 죽음의 칼라, 참회하는 우도에게 베풀셨던 주님의 그 크신 자비를 빌면서.

그리고는, 우리 모두 다시 비굴한 자 아니 되게 머지않아 또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실 「메시아」 임금을 생각하자.

호산나, 다윗의 후손! 우리 주 그리스도 대왕께 권세와 영광, 찬미와 존영이 영원히 영원히 - 아멘.

(장계 전주교회 주임신부)



양심적인 최선을...

이리역 폭발물 사고로 인한 참사는 악몽으로 돌려 우리의 뇌리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먼저 희생된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이 보여준 형제애는 청말로 장한 일이었다. 긴급 구호활동과 복구사업은 사고가 할려고 간 아픔을 어느 정도나마 달래줄 수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담지해온 의로봉사와 구호금품, 이 얼마나 사랑에 넘친 아름다운 일인가? 그것들이 비록 죽음으로 갈라놓은 내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갈 일은 있다. 사랑이 강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유하는 일은 있어도 좋지만, 만에 하나라도 <할당된성금>이라는 묘한 표현이 붙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만 끊임없이 사랑의 고귀함을 깨우치고 권장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천재지변이 아니고 단순히 부주의에서 온 참사이기에 그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 관계되는 모두가 겸손하게 잘못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그 뺏수습에 나서야 한다. 철도당국도, 경찰당국도 그러하며 한국화약측은 더욱 그러하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총력안보를 하고 있는 한국적인 실정에서 볼 때, 그렇게 간단히 화약류를 운송했던 한국화약측으로는 재해 복구사업에 양심적인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뜨거운 정성은 정성이고, 책임은 항상 따로 남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소리는 어느 누구를 탓하려함보다는 그러한 사고가 다시 없기를 비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입을 대신 하는 것이다.

숲정이 산책



□ 논단 □

어떤 징조(徵兆)

—이리 폭발물 사고에 붙여—

김 요 한

이 무슨 날벼락인가?

흡사 「히로시마」 원폭을 방불케 했다는 청천벽력, 뜻밖의 대 참변, 그 아수라장에 심한 진물이 인다. 도대체 이 웬 재앙이란 말인가?

“전화(戰禍) 같은”이 아닌 어쩌면 분명 오늘의 이색 전화(戰禍)인 엄청난 그 참사와 희생자 앞에 꼭 내게 덮칠 화(禍)를 대신 당한 것 같은 먼구스러움이 가슴을 쎸다. 아찔했던 그 순간—아무튼, 현대의 무모함이 빛은 피해의 댓가와 보상을 관계 책임 당국이 신속히 처리, 찢어진 상처를 하루 빨리 아물게 해 주기만을 지레 빌면서 전후의 헛두리를 펴 본다.

어이없이 깨어진 독(毒) 폐버린 지금에 어느 누구의 과실을 탓하고 누굴 욕할든 이제 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다만 원망에 앞서 이번 참화의 저의(?), 그리고 그 깊은 뜻을 나름대로 조용히 헤아려 보고 싶다. 매사(每事)에 하느님께선 의미(意味)를 주시지 않으시던가? 더구나, 우리 눈에 참상(慘狀)이라 보이는 것까지도 주님께선 꼭 그를 언제나 오직 인간 위한 좋은 종으신 배려로 곧잘 허락해 주심을 믿어온 우리이니까.

오늘의 현실을 결코 나쁘게만 보지 말자. 좋은 귀감, 아니, 자신을 위한 하나의 고마운 섭리라 좋게 생각함이 더 옳을 것 같다. 깊이 생각해 보자. 과연 이번 사고는 무슨 징조를 보인 것일까? 어떤 교훈을 담은 경고였을까? 아마도 그런,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우리임을 세삼 깨닫게 해주신 가르침이 아니시운가?! 물거품 같은 하룻날의 재물(財慾)에만 부질없이 매달리던 우리에게 영원한 파멸을 피하도록 번뜩임 깨운 회초리 같아 쓰라림에도 적이, 고마움을 머금은 다. 정작 우리, 「겉새」를 알아 볼 줄 아는 인간이 되면 어제의 참상도 복된 내일 위한 전회(轉禍爲福)되어 지리라. (마태오 24장 참조).

아, 불행중 다행! 그런 어쩔 우리에게 닥쳐야 했을 재난? 귀하게도 대신(代身) 당한 애매한 「이리」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우리 저들 위해 다소곳이 명복을 빌자. 그리고 고맙고 뜨거운 마음으로 상처 입은 그 형제들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펴자.

요 한 1서

박 병 준

저자와 수신인 : 요한 1서에는 저자와 수신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서간과 요한복음서와의 내용이나 문체상으로 흡사한 점(그리스도론 : 요한복음1, 14; 3, 16=요한 1서 1, 2; 3, 16; 4, 2)과 차이점(종말론 : 요한복음 3, 18; 5, 24 ↔ 요한 1서 2, 18, 28; 3, 2; 3, 2; 4, 17)을 놓고 분석해 볼 때, 이 서간의 저자는 요한 복음 사가의 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집필장소와 연대 : 집필장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에페소 집필연대는 1세기 말경으로 추정된다.

문학유형 및 집필동기 : 요한 1서를 서간이라 부르지만 실상 서간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 서두에 발신인과 수신인에 대한 말이 없고, 끝에 인사말도 없다. 이 서간은 서간이라기 보다는 「명상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집필동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지주의(그노시즘)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용과 신학 : 이 서간은 그리스교 진리의 개요를 잘 서술하고 있다. 하느님은 빛이시고(1, 5), 하느님의 본질은 사랑 자체이며(4, 8),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생명을 세상에 선물로 주신 것이다(1, 1-3).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느님의 아들이로서 새로운 인간이 되고, 하느님을 인정치 않는 일체의 사물과 동화하지 않는다(3, 1-10).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2, 9-11). 참된 영지(그노시스)와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결합되는 것이다(4, 1-6). 이 서간은 신앙과 도덕을 동시에 보존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한 인격에 가지신 분이시라는 결론, 유일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세사(求世史)를 한낱 신화(神話)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 서간은 이를 반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세사는 인류의 실제 생활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서간은 교회로 하여금 자기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78년도 교구 연감(敎區年鑑) 제작 안내

- ① 수록 내용... 각 본당의 연혁 및 사도회등 단체소개, 교구 기관소개, 교구 단위 제단체 소개
- ② 각 본당, 기관, 제 단체는 평협 공문 77-14호를 참조하여 29일까지 원고 제출 바람
- ③ 광고(廣告)를 접수 하오니 많은 협조바람 (※ 연락처 전주 3-5098, 교구 평협 사무국)

M^cGREGOR

☆ 삼성물산 ☆

맥그리거

전주 특약점

고급화된 기성복(성인용, 아동용)

유 소 연 (율리아나)

☎ ② 4451 풍년제과 분점 앞

□ 설계·감리·허가수속 □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 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7 3-1440(야가)



필연적인 죽음을 몇몇이 맞자

김 영 구 신부

낙엽이 휘날리는 십일월은 위령성월이다. 여름에 푸르렀던 나뭇잎이 땅에 떨어지듯이 사람도 한번은 죽을 것이다. 우리자신의 죽음을 묵상하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에 교회는 위령성월을 지내도록 마련하고, 이미 죽은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고 기도와 희생으로 그들을 도와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철학자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철학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말을 가끔 생각한다. 철학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생관의 확립은 인간이 바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무기이다. 인생을 허망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죽음에 관한 명상이 필요하다. 고난의 폭풍속에 몇몇이 서고, 불의의 파도속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죽음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다. 모든 비겁, 온갖 변절, 갖은 불충실, 일체의 허위와 죽음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서지 못한다면서 유래한다. 인생의 불안은 생의 공포에서, 그 공포는 사생관이 서지 못하면서 온다.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죽음에 대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나의 삶을 반석같은 기초위에 세우고 고뇌앞에 용감하며 시련앞에 굴하지 않으려면 투철한 사생관(死生觀)의 확립이 요구된다.

철학은 죽는 준비를 하는 학문이다. 다채로운 학문세계 중에는 죽음의 연습을 하는 철학같은 학문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을 생답게 살기 위해서 죽음의 연습이 필요하다.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하여 죽음을 준비하자.

1) 죽음의 신은 공평하다. 부귀 빈천을 막론하고 생이 있으면 반드시 死가 있다. 물론 사람에게 따라서 복수의 수효장단(壽夭長短)이라는 불명등한 점도 있지만 죽음의 신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없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지극히 공평한 신이다.

2) 죽음은 바람처럼 홀연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청천벽력같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여기에 그 무서움이 있다. 죽음을 언제든지 무시로 찾아오기에 그 준비가 필요하다. 잘 산자가 잘 죽을 수 있듯이 죽을 준비가 잘 되어있는 자만이 잘 살 수가 있다.

3) 우리는 날자마자 죽기시작한다. 산다는 것은 곧 죽어가는 것이다. 하루하루 죽음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손이 생명의 문을 냉혹히 두드릴 때 어지러운 꼴을 하지않고 범연하게 나설만한 마음의 자세를 평소부터 준비 해야하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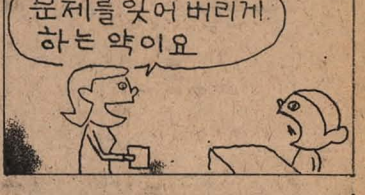
4) 우리는 혼자 죽어야한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다. 태어날 때처럼 혼자 죽는다.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다.

5) 죽음은 경험을 거부하는 세계다. 절대로 죽어볼 수는 없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남의 죽음을 보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는 있으나 주체적으로 체험하는 실존적인 것은 아니다.

6) 죽음은 생의 부정이요, 종말이다. 이것이 죽음의 제일 중요한 속성이다. 한말로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어디론가 혼자 떠나야한다. 죄의 댓가로 마침내는 공포와 비애와 허무의 한계 상황속에 내던져진 존재다.

죽음이 인생의 필연의 운명인 이상 영웅적인 정신으로 죽음에 대해 용감한 각오를 갖는 도리밖에 없다. 주체화된 지혜로써 언제 어디서나 신앞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의 생은 한번뿐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당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나의 정성을 다하는데 구원이 있으며 그것이 생의 지혜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닐까?

요심이 (225) 김병오



□ 개업 안내 □
 빅타이, Y셔츠,
 양말, 스카프 도산매
한 바 다
 박 중 철(요아킵)
 이 윤 례(메레사)
 전주시 중앙동
 신세계 메파트 ←→ 구라파 제과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결 (축) 혼

노상열 씨 장남 호현 군
 이창복 씨 이녀 옥희 양

일시: 77년 11월 20일 정오
 장소: 전주 중앙 성당
 주례: 서 용 복 신부

☐ 신사·숙녀복, 아동복, 다량구비☐

천사양품

박 협 주(메레사)
 ☎ 7055번
 남부 시장 내 중간지점

□ 이전 개업 안내 □
 표구, 병풍, 보료, 스킨

문화양행

하 정 희(엘리사벳)
 팔달로 송의과 맞은편 2-3170.6123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난 방 시 설 은

한국온수온돌

이리 구시장 ☎ 4940
 전주 최정식 ☎ 8342
 군산 청파시장 ☎ 3032

◆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태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5116, 6114, 3547번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이리역 폭발 사고로 인한 참사에 형제애를 발휘합니다

오늘 봉헌되는 성금은 전액 이리 참사에 대한 재난 복구를 위해 쓰여집니다
□전주 교구 인성회 50만원, 인성회 전국본부 837,046원, 해성 중고 신자 학생 및 교사 13,975원
원주 교구 20만원, 대구 교구 30만원, 안동 등부동 성당 5만원, 감사합니다

1. 교구예산 확정을 위한 연석회의 (22일<화> 10시, 교구청 회의실)
2. 참가대상 ①병의회 재정 관리위원 진부, ②교구 수녀 연합회 임원, ③교구 평협 상임위원
3. 한국 가톨릭 농민회, 쌀 생산비 조사보고 대회 및 추수 감사제 (21일<월> 오후 2시-22<화> 12시)
①장소...대전 가톨릭 농민회관, ②참가비...500원 ※많은 참석바람(준정이 제260호 참조)
4. 군산-둔율동·월명동·팔마-연합 청년회 11월 모임 (24일<목> 오후 7시, 월명동 성당에서)
5. 제2지구 웅진대회 (27일<일> 오후 2시, 둔율동 성당에서)
6. 제3지구 학생회 월례회 (27일<일> 오후 2시, 황등 성당에서)
7. 조국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 (21일<월> 오후 8시, 가톨릭 셀타)
8. 사회 정의 세미나 (28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가톨릭 셀타, 교구내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대표)
정의 평화 미사 (28일<월> 오후 7시반, 중앙성당, 신자들의 많은 참석 바람)



(중암)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용욱
3874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유치원
2. 구라아 연수회: 19일~20일, 강당
3. 유아 영세: 25일<금> 어머니 미사 후
4. 강력수(토마) 부제, 신품장에 여부를 분당 신부께
5. 성모상 앞 화단에 나무기증: 김형택 (바오로)

□ 지난주 봉헌금: 116,185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웅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각 분과별 모임(매회 오후 8~10시), 제단체의 대표
는 78년도 계획표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꼭 참석
바람: 선교-20일<일>, 봉사-21일<월>, 전례-22일
<화>, 재경-23일<수>
3. 예비자 면담: 25일<금> 오후 2-5시, 7-8시
4. 밀린 교부금, 속히 납부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50,66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청년회 모임: 오늘 저녁 7시 반, 성서·성가집 치람
2. 주일 미사시간 엄수 바랍니다
3. 분당 신부님 영명축일: 30일
축하식 (27일 공식 미사후)
4. 예비자 교리: <토> 밤 8시 반
5. 감사합니다: 전주제지 김옥자씨-월동 연료 두 마차
기증
6. 각 단체 계획·예산서 27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바람
7. 유아세례: 매월 첫째 금요일
8. 성서대금 속히 납부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임원 임시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각 위원장, 부위원장
2. 미사시간 엄수, 성서·성가책, 기도서 지참 바람
교백정사-미사전 30분간

□ 지난주 봉헌금: 465,10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부녀 주일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반상회: 9반-22일<화>, 10반-23일<수>, 11반-24
일<목>, 12반-25일<금>
3. 서품공시: 사제품에 현유복(분도), 부제품에 김성진
(도마)
위 두분의 서품장에 사실유무에 대해 알려 주시고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38,645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불우 이웃돕기 폐품수집: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학생회에서
2. 「하늘의 문」 L.M단원은 주일 공식미사에 참석바람
3. 청년 레지오에 가입 희망하시는 분은 주일미사 후,
사무실에 모여 주시기 바람.

□ 지난주 봉헌금: 69,20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유석중

1. 서품공시: 범영배 사제품에, 이상섭 부제품에,
위 두분에게 서품 장에 사실유무를 분당 신부께 연락
바람
2. 꼬미시움 월례회: 오후 2시
3. 사도회 총회: 27일(예산결산, 사도회 임원 개원)
4. 신자 목상회(제교육), 가정심방: 대림절 동안
5. 성가정회 특별 피정: 12월 15일 광주 피정의 집에서
6. 루르드 성모 축성식: 12월 8일(성모 무염시태 축일)
7. 새성당 미사: 주일-오후 2시, 평일-<월> 저녁 7시반
8. 12월 4일 학생회 목상회 가질 예정

※새 성당 신축헌금 완납자 명단, (동원찬동): 범창규
박동수, 이덕수, 강길자, 박삼택, 조정희, 정연봉,
김순연, 김대원, 김숙희, 박복순, 이순자, 김영자,
이경이, 김순녀, 배당녀, 서종래, 최정석, 신봉순,
최기춘, 유순애, 최봉림, 탁문구, 김관순, 양동용,
노수영

□ 지난주 봉헌금: 122,350원



대성상사

<제일페인트 전주대리점>

□ 페인트·타이루·건재·합판 도산매, 공사청부

교우들의 깨끗한 집단장을 도와드릴 송호현 (아오스딩)
이남용 (야고버)
이정수 (암브로시오)

★ 전주시 진북동 326-5 (전화 3-6291)

덕진 ↑

서충로타리

시내 ↓

농고 →

대성상사

시외버스정류소